관계부처합동	보도자료	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2026. 10.16.(금) 09:00 배포 2026. 10.16.(금) 08:00

제11차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 회의 개최
3대 핵심 사회정책인 일자리 분야에 전 부처 역량 결집

- 9월 취업자수 3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, 제조업 27개월만에 증가 전환
- 민간·공공 일자리 창출 등을 포함하는 「국민일자리 프로젝트」 추진 방안 마련

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과 **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**은 10.16일(금) 08:00 정부서울청사에서 **'26년 제11차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**(TF)을 주재하여 **'26년 9월 고용동향** 및 **3대 핵심 사회정책** 추진을 위한 **일자리 분야 과제**를 논의·점검하였다.

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**9월 취업자수**는 **전년동월비 11.3만명 증가**하여 **3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**하였다. 업종별로는 **서비스업**(34.5→22.1만명)의 전년동월대비 **증가폭**은 **전월**에 비해 **축소**되고 **건설업**(△3.2→△4.8만명)의 **감소폭**은 **확대**되었으나, **제조업**(△3.8→1.6만명)은 **27개월**만에 **증가 전환**되고 **농림어업**(△10.9→△9.4만명)의 **감소폭**은 **축소**되었다. 종사상 지위별로는 **임시·일용직**의 **감소폭**은 **확대**되고 **상용직**(18.0→25.3만명)의 **증가폭**은 **대폭 확대**되었다. 연령별로는 **청년 고용률**의 전년동월대비 **감소폭**이 전월에 비해 소폭 **확대**(△1.0→△1.1%p)되었고, **청년 쉬었음**은 **8개월 연속 감소세**가 이어지고 있다.

* 취업자 증감(전년비, 만명) : ('25.9)31.2 ('26.2)23.4 (3)20.6 (4)7.4 (5)△4.0 (6)6.3 (7)10.8 (8)18.4 (9)11.3

** 청년 쉬었음 증감(전년비, 만명) : ('25.9)△3.4 ('26.2)△2.0 (3)△5.3 (4)△2.4 (5)△1.2 (6)△4.9 (7)△6.9 (8)△5.1 (9)△4.4

9월 취업자수는 **전년 9월**('25.8월16.6→9월31.2만명)의 **기저효과**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**증가폭**은 **전월에 비해 축소**되었으나 **3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세**가 이어지고 있으며, **전월대비**로도 **4개월 연속 증가**하였다. 다만 **청년** 및 **건설·농림어업** 등 **취약부문·부진업종**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, **중동지역 긴장 고조** 등이 향후 **하방요인**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.

따라서 정부는 최근의 **취업자수 증가 흐름**을 더 **안정적**으로 뒷받침하는 동시에 **경제성장**의 **성과**를 **민생**으로 **확산**시켜 나가기 위해, **일자리 부문 3대 핵심 사회정책**을 **집중 추진**할 계획이다. 아울러, **부진업종별 일자리 상황**을 **지속 점검**하는 한편 **산업활력 제고**, **인력양성**, **일자리·창업 확대**, **근로여건 개선** 및 **고용기반 확충** 등 **다방면의 대응방안**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.

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은 "**경제성장**의 **성과**가 **국민의 삶** 속에서 **구체적 결실**로 이어질 수 있도록, **관계부처**의 **역량**을 **총동원**하여 **민간·공공 일자리**와 **충분한 훈련기회**를 포함하는 「**국민일자리 프로젝트**」**추진방안**을 신속히 마련하되, **기존 대책**의 **확대**는 물론 **새로운 정책**도 **적극 발굴**하겠다"고 밝혔다.

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"**더 많은 국민들의 일할 기회**를 넓혀 나가고 **일자리의 온기를 함께 체감**할 수 있도록, 관계부처와 함께 「**국민일자리 프로젝트**」를 **적극 추진**해나가겠다"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재정경제부 인력정책과	책임자	과 장 김태웅 (044-215-2840)
		담당자	사무관 김문수 (sin20219@korea.kr)
담당 부서	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	책임자	과 장 김병수 (044-202-7210)
		담당자	서기관 온남이 (namohn@korea.kr)